

As-is

2022년 6월, 내가 처음 미국에 온 날이다. 룸메이트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치폴레' 배달 음식을 시켰고, 절반 정도가 남았다. 나는 음식물 쓰레기, 종이 박스, 뚜껑에 사용된 랩, 플라스틱 포크와 수저를 각각 분리하여 버리려고 했지만, 룸메이트 중 한 명은 **모든 쓰레기를 비닐봉지에 한꺼번에 싸서 버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한국처럼 종량제 봉투가 아니라 아무 비닐이나 종이에 싸서 환경미화원이 치워가는 큰 쓰레기통에 넣는 방식이었다. 음식물 쓰레기, 플라스틱, 종이, 비닐을 모두 한 번에 버리다니!

또한, 음식물을 싱크대에 있는 분쇄기로 갈아서 버리는 방식도 충격적이었다. 이 방법이 환경을 오염시키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음식물 찌꺼기가 수돗물과 함께 하수구로 흘러들어가면서 오염을 유발하지 않을까 걱정되었다. 미국은 한국처럼 정해진 날에 분리수거를 하는 시스템도 없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시설도 제공되지 않았다.

나는 한국에서 재활용을 정말 열심히 했다. 플라스틱 음료병에서 비닐포장을 떼어내고, 내용물을 비운 후 깨끗이 씻어 말려서 비닐과 플라스틱을 각각 분리했다. 우유곽도 씻어서 건조한 후 접어 종이에 따로 버렸고, 음식물 쓰레기도 분쇄기를 이용해 따로 처리했다. 이러한 과정이 한국에서는 당연했다.

기차역에서도 물병의 물과 플라스틱을 따로 버릴 정도로 분리수거에 대한 의식이 높았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내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행동들이 일상적이지 않았다. 많은 식당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했고, 분리수거는 일상화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카페에서는 머그컵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스타벅스는 종이 빨대를 썼다. 그러나 미국 스타벅스에서는 여전히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며, 머그컵은 쓰지 않았다. 좁은 땅에서도 이렇게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과 달리, 넓은 땅을 가진 미국에서조차 이러한 기본적인 분리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다니, 내가 평생 동안 해왔던 재활용과 환경 보호 노력이 얼마나 무의미하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텀블러 사용을 홍보해봤자, 이렇게 기본적인 분리수거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슨 소용이 있을까?

To-be

미국에서 유학 생활 중, 룸메이트들과 치폴레 배달 음식을 시켰고, 반 정도가 남았다. 나는 이를 음식물 쓰레기, 종이 박스, 뚜껑으로 쓰는 랩, 플라스틱 포크와 수저를 각각 분리해서 버리려고 했다. 그러나 룸메이트 중 한 명이 모든 쓰레기를 비닐봉지에 싸서 한꺼번에 버렸고, 나는 이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문제 상황의 시작)

치폴레 음식을 룸메이트들과 시켰다. 음식을 다 먹고, 쓰레기를 처리하려는 순간, 나는 내가 사용하는 환경 친화적인 소비 앱을 열었다. 이 앱은 내가 치폴레에서 주문한 음식을 자동으로 인식해 포장 용기가 어떤 재질인지, 플라스틱과 종이의 정확한 분리 방법을 안내해주었다.

앱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의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고, 종이 박스는 깨끗이 씻어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는 방법을 배웠다. 플라스틱 포크와 수저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경고와 함께, 다음 번에는 재사용 가능한 식기를 선택하라는 추천도 받았다. 또한, 앱은 내가 이러한 행동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얼마나 절감했는지와 플라스틱 사용량을 얼마나 줄였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래프로 시각화해 주었다.

앱을 사용하면서 나는 재활용하는 모든 과정이 더 쉬워졌고, 환경에 더 이로운 선택을 했다는 성취감을 느꼈다. 게다가, 앱에서 제공하는 메달 시스템 덕분에 내가 현재까지 절약한 탄소 발자국을 확인하고, 나무 몇 그루를 심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로 인해 나는 더 지속 가능한 소비 습관을 유지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받았다. 그리고 이 앱을 룸메이트에게도 보여주었다. 룸메이트도 앱의 안내에 따라 비닐봉지에 모든 쓰레기를 넣지 않고, 음식물, 플라스틱, 종이를 각각 분리해 버리기 시작했다.

객관적인 요소 정리

WHO: 나, 미국인 룸메이트, 미국인들

WHEN: 2022년 6월, 내가 처음 미국에 온 날

WHERE: 기숙사, 미국인 룸메이트와 치폴레를 시켜먹은 곳

WHY: 배달음식을 먹고 난 후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HOW:

- 나는 한국에서처럼 각 재질별로 분리수거를 하려 했음.
- 미국인 룸메이트는 모든 쓰레기를 한꺼번에 비닐봉지에 싸서 버림.
- 쓰레기 처리 장소는 아무 비닐이나 종이에 넣어 큰 쓰레기통에 버리는 방식임.
- 나 역시 별도의 분리수거 시스템이 없어 동일한 방식으로 쓰레기를 처리함.

WHAT: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모든 쓰레기를 한 번에 버렸다.

주관적인 요소 정리

문제 / 불편한 점 / 장애물

-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 부족:

- 미국에서는 분리수거 의식이 부족하여 모든 쓰레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 이로 인해 재활용 가능 자원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음

- 일회용품 사용 과다:

- 많은 식당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며, 재사용 가능한 대안이 부족함
- 사용자가 환경을 고려한 선택을 하기 어려움

- 쓰레기 처리 방식의 복잡성:

- 사용자는 다양한 재질의 쓰레기를 각각 다르게 처리해야 하지만, 명확한 지침이 없거나 실천이 어려움

- 재활용 시스템의 차이:

- 한국과 달리 미국은 재활용 시스템이 일관되지 않으며, 지역마다 다른 규정이 있어 사용자가 헷갈릴 수 있음.

주관적인
요소 정리

좋아진 점

- 분리수거와 재활용 안내:

- 앱을 통해 정확한 분리수거 방법을 안내받아 재활용을 손쉽게 실천할 수 있음
- 각 제품의 재질별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려줌

- 환경 영향을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

- 앱에서 사용자가 실천한 재활용 활동이 환경에 미친 영향을 탄소 절감량 등으로 시각화해주어 성취감을 제공

- 지속 가능한 대안 제공:

- 일회용품 대신 재사용 가능한 대안을 제안해주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의식 변화:

- 사용자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어, 작은 실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됨

- 앱에서 내가 먹은 음식을 자동으로 인식:

- 앱을 열면, 내가 주문한 치폴레 음식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그 음식이 사용한 포장 재질(플라스틱, 종이, 음식물 등)을 분석해 제공함
- 앱은 이 재질을 바탕으로 나에게 최적의 분리수거 방법을 안내해줌. 예를 들어, 종이 박스는 어떻게 씻어서 재활용할지, 음식물 쓰레기는 어떤 통에 버려야 할지 등

- 분리수거의 목적 설정:

- 앱이 나의 목적을 설정해 줌. 즉, 내가 이 쓰레기를 적절히 분리해서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음
- 앱은 내가 분리수거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자원을 절약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주어, 그 목적을 더 명확하게 보여줌

- 개인화된 재활용 제안:

- 내가 이 앱을 반복적으로 사용할수록, 앱은 나의 소비 패턴과 재활용 습관을 학습함
- 이를 통해 나는 재사용 가능한 제품 추천을 받거나, 내가 잘못 버렸던 과거의 실수를 피할 수 있게 도움을 받음
- 예를 들어, 앱은 다음 번에는 플라스틱 포크 대신 재사용 가능한 포크를 사용하도록 제안해줌

- 간편한 실행 방식:

- 내가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앱의 안내에 따라 쓰레기를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음
- 별도의 복잡한 검색이나 추가적인 고민 없이, 쓰레기 처리 과정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짐
- 룸메이트도 이 과정을 보고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됨

- 환경적 성과의 시각화:

- 내가 분리수거를 완료하면, 앱은 내가 얼마나 많은 탄소 배출량을 절감했는지, 얼마나 많은 자원을 재활용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줌
- 앱은 이를 그래프와 친숙한 시각적 요소(예: 나무가 얼마나 자라는지 등의 비유)를 사용해 성취감을 제공

- 보상 시스템 연동:

- 내가 환경 보호를 위해 실천한 결과에 따라 앱은 나에게 메달이나 탄소 절감 포인트를 제공함
- 이러한 보상은 지속 가능한 소비를 이어가도록 강력한 동기부여가 됨
- 예를 들어, 일정 포인트가 쌓이면 나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음